

## 재두루미(*Grus vipio Pallas*)의 월동 서식 특성 분석을 통한 비무장지대 내 중점보전지역 설정

정지향,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

철새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한국에 도래하는 조류는 약 400여 종인 것으로 보고 되었고, 이 무리 중에는 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희귀종 및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보존가치가 높은 철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밝히고, 그 서식분포를 밝혀내는 것은 멸종 위기종 및 희귀종의 보전을 위해 기본적인 토대로 이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철새 재두루미(*Grus vipio Pallas*)는 1968년 5월 30일에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된 종으로,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리되어 강력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는 조류이다. 현재 국내에 도래하는 재두루미는 중국, 러시아 등지의 번식지에서 이동해오는 개체군으로 한반도내 철원지역과 한강하구유역에서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두루미의 이동경로와 서식분포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파발신기를 각각 다른 집단에서 추출한 총 7마리(1993년 5마리, 1994년 2마리)의 재두루미(*Grus vipio Pallas*)에 부착한 후 인공위성 “노아”로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GPS자료(1993년과 1994년 각각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하루 1~7번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Landsat TM 위성영상자료로 작성된 토지피복도에 GIS기법을 이용해 재두루미(*Grus vipio Pallas*)의 겨울철 기간동안 한반도내에서의 이동경로와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주·야간의 시간대별 월동 서식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공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비무장지대 내 중요 서식 환경의 보존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 재두루미(*Grus vipio Pallas*)무리는 러시아에서 남하하여 북한 동해 연안의 원산 등의 습지대를 경유하여 비무장지대 내 철원 일대와 한강하구유역에 집중적으로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철원일대에서는 주간에는 먹이를 얻기 위해 논, 밭, 초지등지에 주로 분포하고 야간에는 수면, 휴식 등에 용이한 습지와 혼효림 및 기타 숲지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한강하구유역에서는 주로 연안습지에 집중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재두루미(*Grus vipio Pallas*)의 보존은 주간에 먹이 획득에 용이한 환경과 야간에 수면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보존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두루미(*Grus vipio Pallas*)가 월동지로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반도내의 철원지대와 한강하구유역의 보전과 서식지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